

# 第42次 INTERCEM AMERICAS會議 結果報告

管 理 課

시멘트 및 연합업체와 시멘트 관련제품업체들을 망라하는 국제회의인 INTERCEM AMERICAS회의가 지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미국 Miami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49개국 332명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석환 양회협회 부회장을 단장으로 9명의 대표가 참석하였다.

동회의에서는 세계시멘트 교역현황 및 국가별 시멘트동향 등의 주제들에 대하여 주제별 발표자들의 발표와 그에 따른 질의 응답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우리에게 약간은 생소한 INTERCEM회의의 역사, 회의목적 및 방법 등을 간략하게 서술한다음 급변 회의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 1. INTERCEM 회의

1985년 영국 런던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영국 런던 소재 BUSINESS MOTIVATION SEMINARS社(BMS)가 년 1~2회 주최하는 시멘트 생산, 교역, 설비, 해운, 수송 등의 시멘트 및 연관업체와 시멘트 관련제품업체들을 망라하는 상업적인 국제회의로서 관련정보 및 의견교환이 주목적으로 개최장소는 매년 변동되고 있다.

초기단계에는 유럽업체 대상으로 유럽지역에서 개최되었으나, 88년에 홍콩에서 INTERCEM

ASIA, 89년에 멕시코의 CANCUN에서 INTERCEM AMERICAS라는 이름으로 개최된 이래 3개 지역으로 부할하여 개최되고 있으며, 동 지역의 실정에 맞는 내용으로 주제를 설정하고 있다.

통상 2일간의 일정으로 주제별 4 SESSION으로 진행되며, 각 SESSION마다 의장이 선정되어 3~4명의 발표자가 세부 주제별로 발표를 한 후 간단한 질의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진행된다. 주제 발표자는 각 지역에서 지명도가 있는 인사로 BMS社에서 사전에 위촉하고 있다.

참석을 원하는 참석자는 국가나 협회에 구애됨이 없이 개별적으로 참석이 가능하며, 최근의 경우 매회 세계를 망라하여 50~70여개국에서 약 500~600여명이 참석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86년 이래로 쌍용이 매년 2~3명 참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라에서도 참여한 바, 쌍용은 88년 홍콩, 90년 싱가포르, 92년 홍콩, 94년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INTERCEM ASIA CONFERENCE에서 한국의 시멘트 산업 전반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었다.

## 2. 발표 내용

### 1) 세계시멘트 교역현황

각 국가별 수급상황에 따라 시멘트교역이 지

속되어 있다. 보다 세계화될 것으로 보이며, 시멘트 교역량은 연간 75~95백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2) 미주지역 국가별 시멘트시장동향

### 가) 미 국

전반적인 시멘트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며 92년 이후 경기회복으로 시멘트소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멘트 생산공장중 일부가 폐쇄(93년 이후 22개)되었는데, 이는 경쟁력의 약화와 설비 노후화 등에 따른 결과이다. 시멘트 수요에 있어 건축경기 및 고속도로건설 프로그램으로 인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록키, 중서부, 남동부지역은 5% 이상 증가하였다. 시멘트수입이 있어 내수증가 및 공급한계로 수입이 91년 600만톤, 93년 1,200만톤, 95년(E)1,500만톤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의 수입터미널 보유비율이 87년에 32%에서 94년에 10%로 감소하였다. 한편, 덤핑의 영향으로 남부지역에서는 고용감소, 순이익 감소, 가동률 저하가 발생하였다.

외환 및 통상정책의 원활한 추진으로 향후 미국경제는 연착륙(Soft Landing)에 성공할 것으로 보이며, 96년 대통령선거 후유증으로 97년은 약간 후퇴할 것으로 보이나 전반적으로 99년까지 4~5년간은 시멘트산업 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나) 캐나다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시멘트산업의 성장둔화 및 낮은 소비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94년 이후 시멘트소비는 증가추세로 94~95년 700만톤, 96년(E) 750만톤, 97(E) 800만톤으로 예상된다. 수출의 경우 92년 이후 미국수출을 중심으로 증가되고 있으며(92년 380만톤, 94년 450만톤, 99년(E) 500만톤) 향후 시멘트산업의 성장은 예상되나 그 수준은 다소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 다) 멕시코

중남미에서 가장 발전된 큰 시장이며 과거

20년간 연평균 5.3%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내수는 주택건설경기 회복으로 95년 2.5% 감소에서 96년 6%, 97년~2000년 5%의 성장이 예상된다. 88년 470만톤 수출후 89년 미국의 반덤핑 제소로 수출이 격감하였으나 93~94년에 110만톤, 95년(E) 290만톤으로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레미콘산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94년에는 900만<sup>m</sup>³ 이상 소비되었다. 지난 몇년간 일시적으로 위축되었으나 향후 기대 이상의 성장이 예상되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니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라) 기타 중남미 국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멘트산업 성장지역이며 소비도 대체로 증가추세에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시멘트산업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며 소비수준도 낮은 상태이며 칠레는 중남미에서 시멘트산업이 가장 발달해 있으나 생산규모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브라질은 시멘트산업의 성장잠재력이 가장 크며 전망 또한 밝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콜롬비아는 시멘트 소비증가율이 7%로써 가장 안정적인 시장이며 레미콘 산업에서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높은 시멘트소비 증가율을 바탕으로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페루는 신증설을 과감히 추진 중이다.

## 3) 종합의견

아메리카대륙내 시멘트산업은 건축경기회복 등으로 전반적인 성장추세에 있으며 특히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들의 성장속도와 잠재력은 주목할 만하다.

시멘트는 수급특성상 국가간 교역이 필수적이며 그 교역량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한국도 중국 및 동남아 국가들과 비교하여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데도 수출가능물량 보족, 세계경기회복 및 노후선박 증가로 인한 해상운임의 강세지속과 제조원가의 상승추세 등으로 인하여 향후 3~4년간 국내업계의 수출환경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